

##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5:14-21(현대인의 성경)

### 1. 말씀

14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하고 지혜로워서 충분히 서로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15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점을 상기시키려고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담대해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16 그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18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과 행동과

19 놀라운 기적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힘껏 전했습니다.

20 나는 남이 세워 놓은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21 이것은 성경에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것이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 3. 메시지

-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은 어떤 것 이고(16절), 그 목적은 어떤 것 인가요?(18절)

→ \_\_\_\_\_

-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은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17절)

→ \_\_\_\_\_

- 나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권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말하거나 조언해야 할 상황이 있었나요? 어떻게 대응했나요?

→ \_\_\_\_\_

-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요?

→ \_\_\_\_\_

-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과 행동과 놀라운 기적과 성령님의 능력"을 이야기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성령님의 역사)을 경험한 순간이 있나요?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요?

→ \_\_\_\_\_

-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 \_\_\_\_\_

-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은 어떤가요?

→ \_\_\_\_\_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전히 듣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요?

→ \_\_\_\_\_

-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롬 15 장 14-21 (바울의 복음 전파 원리)

바울의 복음 전파 원칙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길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 파송은 놀라운 성과이고 자랑스러운 대목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쉽게도 선교지 중복투자, 선교사 관리 및 노후 대책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통계상 90%이상의 한국 선교사가 대도시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효율적인 구령 사역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더러는 선교사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 지원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교회나 신학교 설립이 중복되어 선교 자원이 낭비되는 일도 있을 정도입니다.

교단과 선교 단체 간에 선교지 분할과 같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아 또한 교단 정책이나 선교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보면, 선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교지 사람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울의 선교 정책, 즉 “다른 사람이 닦아 놓은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쓴” 그의 자세는 큰 경의를 표할 만합니다. 지혜로운 선교 사역을 위해 한국 교회의 역량이 모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 6. 기도